

지역 넘어 세계 속 전주로 나아간다

시, 병오년 새해 맞아 세계 선도 AI 거점도시·창의적 K-컬처 수도 도약·전주 올림픽 유치 도전

전주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AI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등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K-컬처의 수도로서 대한민국 문화자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세계 속의 전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 전주 대전 환의 기반이 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전주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지역발전의 가로막아 온 걸림돌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더 큰 전주로 나아갈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는 전 주 대변혁의 심장부가 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고, 옛 대한방직 부지와 역세권 개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또 대공원 개정 등 100만 평역도시 도약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특히 시는 3년 연속 국가 예산 2조 원대를 확보하고, 노후산단정점력 강화지구 선정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노후화된 팍북동 산단도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 또, 규제 합리화와 투자유치 여건 개선 등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과 완산벽커 더 스페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조감도.

이스, 이종호수 도서관 개관 등 전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확장하고,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 큐뮤엄 스튜디오 한국 법안실립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

여기에 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희망더딤 특별보증 지원, 올해까지 1조 7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인구청년정책국 신설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공급, 전주기업반,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정착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공원일몰제로 난개발 위기에 처한 도심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려울 속에서도 축구장 200여 개 규모의 공원 사유지 부지를 매입했으며, △

후백제 역사 문화자원 보존 및 재조명 △시청사 통합 △전주전·삼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수위 안정화 등 장기적인 난제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세계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전주

시는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도시,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 수 있는 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를 AI 거점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를 전환, AI 산업 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 체질을 혁신하기로 했다.

시는 또 2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와 외국인 대상 테마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 관

광시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자료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야간 관광 콘텐츠 △국가유산야행 △통합 축제 페스타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등 전주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마련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간재신비문화수련원 △전주 부성 복원 등 역사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주 고도 지정을 이뤄내 후백제 수도 전주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 근 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나해 올림픽 대한민국 후보 도시로 선정된 이후 세계를 향한 도전을 준비해온 전주시는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질자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국제대회 경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포럼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활동 △전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북한스포츠타운 공영주차장 △스포츠가치센터 등 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기부문화 확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주시는 8일 전주시장실에서 기부 문화 확산과 적십자 회비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주시

전주시는 8일 전주시장실에서 기부 문화 확산과 적십자 회비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홍식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전주시에 특별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를 포함한 회비 모금액은 각종 재해 이재민 구호 활동 및 저소득층 지원,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는 8일 의정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에 동참했다.

전주시의회는 8일 의정실에서 남관우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최봉만 완산지구 협의회장, 라태원 덕진지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100만원)는 긴급재난구호와 지역사회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남관우 의장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헌신적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전주시에 나눔과 봉사의 이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식 회장은 “적십자 특별회비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전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십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희성 기자

신중년 신규 채용 기업에 월 70만원 지원

전주시, 2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15개 기업 선정

전주시가 신중년층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참여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신중년 취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총 1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기업에 채용된 신중년 취업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 인원 외에 정규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55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은 지역 경제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완산한우급창 착한가게 현판

전주시 완산구 효지2동 주민센터(동장 박정향)와 효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전주완산한우급창(대표 한옥주)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액의 일부(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계로,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순창 용결산 하늘길

○ 이용시간 : 09:00~17:00(3월부터~11월), 09:00~16:00(12월~2월) ○

자연을 품다

정상에서 서서

치유의 숲

○ 입장료

구분	입장료		순창사랑상품권 환급
	개인·단체	무료 입장객	유료 입장객
성인·학생	4,000원	만6세이하, 7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창군민 등	2,000원

○ 문의전화 : 063-650-5660(용결산 매표소)
○ 주 소 :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540